



아름다운 가을의 신비의 천연항생물질

프로폴리스의 기적

제3장 전문의도 놀라는 여러 가지 효능

♣알레르기성 질환(비염, 화분증)과 황사

나날이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주위에는 천식, 비염, 알레르기성 각종 질병, 화분증 등이 심해집니다. 특히 실내의 먼지, 이른봄의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의 감기는 지방보다 오염도가 높은 도시인이 걸리기 쉬운 질병입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면서 콧물이 줄줄 흐르며, 심할 때는 재채기와 함께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지 못합니다. 화분을 멀리하고 여러 가지를 조심해 보지만 항상 되풀이 될 뿐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원액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외에 묽게 타서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화분증 등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큼니다. 분무기는 가정에서 옷을 다릴 때 쓰는 제품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화분증으로 눈이 가려울 때에는 눈에, 재채기나 콧물이 날 때는 코에 분무하는데,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체질이란 외부에서 이물질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방위반응(항원항체반응)이 과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을 알레르겐이라 말하는데, 보통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면 먼지나 공기 중에 떠 있는 화분이나 세균, 곰팡이 같은 흡입알레르겐과 계란이나 우유 등 식물 알레르겐이 원인이 됩니다. 이들 알레르겐이 체내에 들어가면,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점막이 부어서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호흡기관이 좁아져 심하게 기침을 하는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

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입 속에 분사하면 심한 기침도 감쪽같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기침으로 상한 기도의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점막에 붙어 있는 병원균에 대해서 프로폴리스 성분에 함유된 항균, 염증방지, 마취효과나 세포재생효과 등이 대단히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황사가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황사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유아나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휴교 등으로 외출을 방지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등으로 철저히 차단한다고는 하지만 공기로 숨을 쉬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사가 심할 때에는 외출한 후 스프레이로 분무하거나,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양치질을 하면 구강 소독에 탁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마스크에 프로폴리스 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 솜이나 가제를 넣어서 착용하면 한결 숨쉬기가 쉬워지며 목이 아픈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기가 유행하거나 특히 환절기 때는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폴리스를 묽게 해서 그 물로 양치질하는 것은 한방과 마찬가지로 항생물질 등을 이용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연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를 스프레이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원액을 묽게 해서 사용해야 하며, 원액을 옮길 때 금속 제품이나 플라스틱 그릇은 피하고 도자기나 유리 그릇의 스프레이(향수용 스프레이가 최적)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액을 묽게 할 때는 보통 프로폴리스를 마실 때 쓰는 컵 등에 5-6방울의 원액과 물(순수한 물, 깨끗한 물)을 넣어 섞은 후, 이 묽은 액을 깨끗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소아천식, 기관지천식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속히 치료하고 싶고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천식입니다. 소아천식의 경우는 천식(숨을 쉴 때 '쌩쌩', '사악' 하고 숨소리가 나는 것)을 동반하는 호흡곤란의 발작이 특징입니다. 이 발작은 기후와 온도변화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봄, 장마철, 가을 등 기온이 고르지 못한 시기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신다든지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에 찬 곳에 있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체온이 올라갔을 때에 발작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어른의 경우에는 자율신경이 불완전하다든지,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발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기침이나 재채기에 천식이 조금 동반하는 정도지만 중증이 되면 몸을 앞으로 쭉그린 자세를 하지 않으면 숨쉬기 곤란합니다.

더욱더 심하게 되면 치아노제(산소결핍으로 입술이 자색으로 되는 증상)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것이라고 딱 꼬집어 할 만한 결정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한방요법은 장기 복용하지 않으면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그 효과를 체험하는데 있어서 한방 치료와 같이 긴 시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효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천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프로폴리스를 목에 뿜어 넣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방법과 아울러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폴리스의 약효는 입 속의 세균을 죽이는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소염작용 등이 유효하게 작용해서 꽤 심한 기침도 4-5회만 입 속에 뿜어 넣으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코감기, 알레르기 만성비염

분무기에 넣은 프로폴리스를 코 속에 분사해 보십시오. 호흡기의 증상 중에 코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등 콧병에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코

감기는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후각장애는 물론 온몸이 나른하고, 오한과 함께 두통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의 초기이기 때문에 조속히 프로폴리스를 콧구멍 속에 분사하면 콧속이 부드러워지면서 코막힘이 사라집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은 특히 코감기에 걸리기 쉬우며, 인후가 약한 사람은 편도선이 붓기 쉽고, 그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인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는 코 속이나 목 깊숙이 프로폴리스를 분사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으로 코나 목 등의 저항력(면역 기능)을 높여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제하고 감기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BCG(방광포립)

프로폴리스 원액의 생산지로 널리 알려진 브라질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르거나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의 의사는 별 불일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부분 프로폴리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세가 가까운 사람이 위궤양(초기암)이라 진단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갑작스런 혈뇨로 방광포립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장포립의 경우는 절제수술로 끝나지만 방광포립은 절제수술 뒤에 결핵균을 약독화한 BCG 방광주입요법이란 것을 받으면서 겨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2년 뒤에 검사한 결과 처음에 포립이 있었던 그 자리가 조금 부풀어올라 포립이 재발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CG요법은 약독결핵균에 의한 생균악진을 방광 내에 주입해서 포립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1회, 모두 여덟 번 주입합니다. 이 요법은 2회째 주입 후에는 5분마다 화장실에 가게됩니다. 또 배뇨 시에는 통증과 혈뇨, 미열도 나타납니다. 출혈성방광염의 상태로 되어 방광내부가 한꺼풀 벗겨지면서 포립이 떨어지는 요법으로 출혈이나 통증은 참을 수 있지만, 배뇨 시의 통증과 불쾌감은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다시 경험한다는 것과 수술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



폴리스를 접하게 되었고, 곧 프로폴리스를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한컵에 10방울씩 떨어뜨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방광경 검사를 하니 재발하려고 한 포립이 소멸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양과 포립

프로폴리스에는 종양증식과 성장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립이 사라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방광포립도 경과 관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포립은 재발한다는 것이 공식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임상사례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의사가 스스로 권유한 약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프로폴리스란 생소한 민간약에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도 생약의 단독성분은 알고 있어도 둘 이상의 혼합처방이 되면 각각 어떤 성분끼리 작용해서 새로운 효과(상승작용이나 상살작용 등)를 낳는지 불분명한 점도 많습니다.

한방의 처방 자체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성분이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단품으로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현대화학, 약리학 수준에서 어떠한가의 해답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폴리스 체험담을 들어보면 종양증식을 억제하는 작용과 포립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견비통, 요통, 피로회복

입욕법은 프로폴리스를 넣지 않아도 효과가 있지만, 프로폴리스를 넣으면 마음의 조급함이 진정되고 견비통, 요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폴리스의 정혈작용, 강심제로써의 약효가 피부 전체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입욕을 위한 탕 속의 물은 일반적으로 40~50도 정도면 적합합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심장병 환자 이외의 건강한 사람이면 고온욕도 괜찮은데, 프로폴리스를 넣은 물은 39도 정도로 조금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2인용의 욕조면 1회 30그램 이상(이상적인 양은 100그램)의 프로폴리스를 탕 속에 넣으면 욕조 내의 물은 백탁(白濁)해집니다. 최소한 20분, 길게는 30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심신의 피로가 회복됩니다.

프로폴리스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부위의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가 약하고 식욕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주위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뿌옇던 물이 검게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 탕에 1일 2~3회 반복 입욕하면 위의 상태가 좋아져 식욕이 나며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프로폴리스 탕에 들어가도 위 부위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지 않고 물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몇 사람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입파성 암으로 의사에게서 외면당한 한 남성이 프로폴리스 탕에 들어갔다가 탕 속의 물이 검게 되는 바람에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10회 정도 입욕한 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장포립

프로폴리스의 제암작용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논란이 많지만, 지금 소개할 남성과 같이 현재의 응용사례로써 효과가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입욕법으로 대장포립 수술을 한 후의 회복단계에서 진행이 순조로웠다는 체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3년 전 대장에 생긴 포립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는 남성의 경우인데, 그 남성은 한 달에 2~3회씩 프로폴리스 목욕을 하면서 매일 30방울 가량의 프로폴리스를 계속해서 복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봤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탕 속의 물이 검어지면서 욕조 밑에 흑색 같은 찌꺼기가 남았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프로폴리스에 함유된 다종다양한 약리적 효과가 피부에 흡수되면서 몸 속의 노폐물이 방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 호전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대장검사에서 포립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몸의 내,외부에서 프로폴리스의 약효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병, 같은 증상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프로폴리스 약효가 잘 나타난 예로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